

참교추 회원 기사란

『몇 가지 은혜와 깨달음 나누기』

배국환 목사 | 생철교회

친애하는 '참교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로 목회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와 깨달음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목회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빨리 담임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소명을 가진 사역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역자 특히 목사 안수를 받은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다른 사역자들보다도 교회의 담임 목회 사역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십수 년을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빨리 담임 목회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른 말씀으로 참되고 바르게 세워보고 싶었던 마음이 부풀어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참 착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원했던 담임목회를 현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의 55년 역사에 24대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55년의 교회 역사 중 24번째 담임목회자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 교역자들의 아들이 매우 갖았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이전 교역자들이 바르게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배 사역자들처럼 전통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인 목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개혁주의적 신앙과 신학 그리고 바른 말씀으로만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것이라고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담임목회자가 된 제가 더 잘 해낼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담임목회를 시작하고 한 해, 두 해를 지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이러한 기세들은 모두 사그라들었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던 구속사니, 성경신학이니, 신앙고백이니 하는 가르침에 연료한 성도들이 대부분 농촌교회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성도들을 고려한 그들의 언어로 성경과 교리들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심도가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없는 성도들에 지쳐가던 저는 목은? 신자보다는 초신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인사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은 마당에 개를 풀어놓아 개에게 물릴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2.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더라

제가 직접 전도하여 교회로 온 새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저는 저의 사역에 대해 심한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곳에 중을 보내셨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빨리 떠나고 싶다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마당에 15인승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아이들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해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인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네의 주민들도 하나둘씩 교회에 와서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위 교회들이 말하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120석 정도 되는 교회의 예배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배 후의 식사 공간과 교육 공간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교인들 사이에서는 부족한 공간 때문에 건축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교회는 교육관과 사택, 식당 등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건축들을 마치면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더라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목사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했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선배들에게 듣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 일들이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직접 마주하여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니 제 일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깊은 시련의 시간들도 흘러갔습니다. 조금씩 상처가 아물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참교추'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은 거의 20여 년 전 인터넷으로 처음 설교를 들어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목사님은 '개혁주의적이면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가슴을 가진 설교자가 있구나!' 하며 감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목사님을 잊고 지냈었는데 참교추에서 직접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시작된 '참교추'는 제게 큰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같았습니다. 안개 자욱한 길에서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광야에 홀로 버려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같이,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저였습니다. 그러나 참교추를 통해 목자의 보호 아래 풀을 뜯고 평온히 물을 마시는 양떼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찾아온 더 큰 시련과 어려움 또한 참교추가 있었기에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반성

무척산 기슭에서의 만 13년 2개월의 목회를 돌아보니 많이 부끄럽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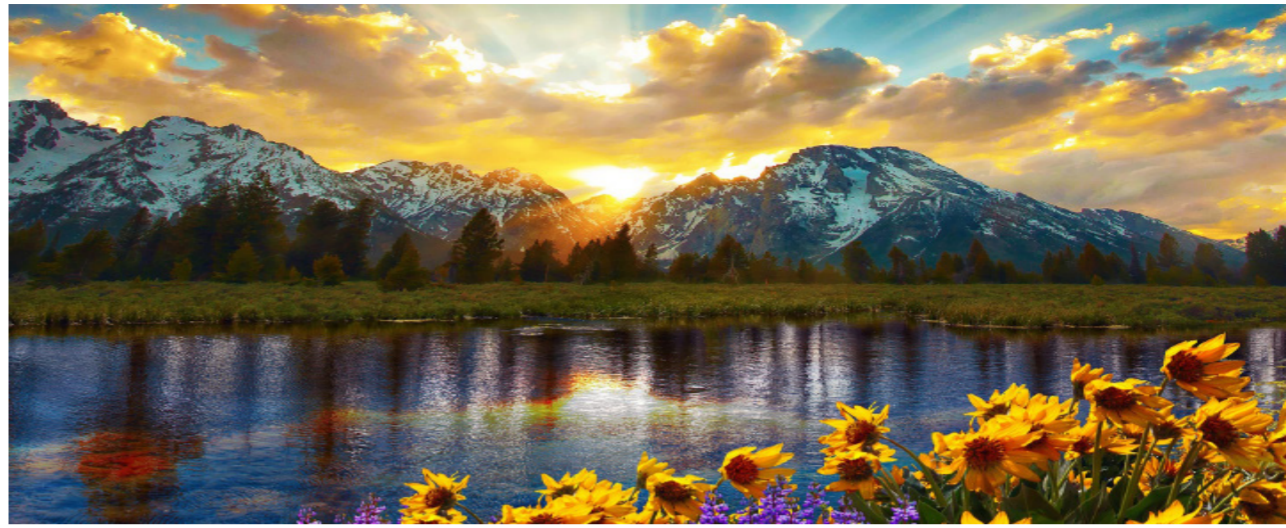
분별과 열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철이 없었고 교만하였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을 보며 한숨지를 줄은 알았지만 아버지의 심정과 목자의 심정은 갖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알아가는 성경과 신학적 지식이 곧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오해하며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와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개혁해야 하는 전통과 관습만 따른다고 생각이 드는 다른 목회자들을 쉬이 재단하고 판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덜? 개혁주의적인 것처럼 보여도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개혁주의도 좋고, 성경신학도 좋으나, 그 가운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고, 또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해야 함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 좌절, 고난 등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라는 한 사람의 목회자를 다듬어 가시고 참된 신자로 만들어가시는 통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부족한 목회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우리의 수고와 슬픔뿐 아니라 실수와 좌절까지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에 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교추 칼럼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온 나라에 퍼지는 데 교회가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이러한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회 회의론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더욱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예배하고 활동하면 됩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같은 질문을 받을 때, 크게 당황해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말입니다.

한 크리스천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을 해체하자.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느냐. 각각 흩어져 제 갈 길을 찾아가자'라고 구요. 우리 가정은 당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큰아들은 우리 부부의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 또한 서로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나에게 남은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는 가정해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가정해체 선언을 한 상황 속에서 이 의사는 '결코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한 가득 빛을 찾는 심정으로 기독교 배경의 '아버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이 의사에게 기독교는 단지 아내가 믿는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학교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진 근처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밤마다 교회에 들어가 의자에 한참을 앉았다가 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진 그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있다가 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 의자 앉아 이전에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그에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사의 깊은 무거운 짐을 받아주셨습니다. 골프와 술 등의 세상 미련을 끊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섬김 속에서 가정은 회복되어 갔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큰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가정 안에는 끊어졌던 대화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오랜 시간 벽을 둔 채 지냈던 아내와도 함께 교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발걸음은 실로 경쾌했습니다. 이

의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 기적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의사가 가정의 절망적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의 가정에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간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고 단순화됐다고 여겨지시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의사가 가정에 나타난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교회에서는 매일, 매 주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와 SNS 상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에서는 연일 이와 같은 기적의 리포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전도를 할까요? 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선교를 갈까요? 가족과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왜? 기를 쓰고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은 이 같은 교회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절한 어둠과 죽음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빈 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공동체를 통한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가정해체 위기를 대한민국이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 안에서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가정해체 선언을 한 가정의 어찌 위의 의사 가정뿐이었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해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기아, 납치와 살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고, 스스로를 방치하며,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라고 절규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한 기적 때문에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한 일간지의 칼럼을 각색한 글입니다.>

月刊 참교추

2021년 7월호 통권 6호

News

9월 정기 모임

- 9월 27일(월) : 10시 30분
- [대담]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네
- [조별] 삼위일체와 구속언약

정기모임 여름방학

- 기간: 6월 22일 ~ 9월 19일
- 개강일: 9월 27일(월) 정기모임

2021 참교추 컨퍼런스

- 주제: "무너진 믿음, 오직 믿음" (Sola Fide)
- 장소: 하늘영광교회(강동구 암사동)
- 시간: 10월 25일 10시 개최



두루선교교회(서재길 목사)



그영광교회(강사명 목사)



하늘영광교회유년부(박지성 강도사)

참교추 정기모임 조편성

1조	김영제 강동훈 김시은 김학재 박지성 오준석 정병윤
2조	김훈 강성대 김성민 김종원 박충성 이대원 차지태
3조	이성규 강육남 김양수 김중구 배국환 이성준 정우열
4조	정중남 김대성 김영남 김용석 서재길 이원범 황병진
5조	최은상 김명일 김영채 박경태 신용화 이준동 권오인
6조	강사명 김선민 김완술 강성일 안기문 임정택 박상우

참교추 모임안내

정기모임	매월	3번째주 월요일
정기 세미나	매년 5월	마지막주 월-수
컨퍼런스	매년 10월	마지막주 월요일
부부 수련회	매년 1월	마지막주 월-화
신입회원 나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2021년 회원교회

- 광명민음교회(광명)
- 광의의성교회(수원)
- 높은뜻교회(성북)
- 두루선교교회(서초)
- 물안동산교회(강서)
- 백마누리교회(일산)
- 생철교회(김해)
- 세계로교회(시흥)
- 송정교회(포천)
- 심플교회(시흥)
- 양무리교회(강동)
- 영남교회(대구)
- 오빈교회(양평)
- 은혜의숲교회(하남)
- 주님의숲교회(수원)
- 참사랑교회(동대문)
- 충만한교회(시흥)
- 하늘가족교회(금천)
- 하늘기쁨교회(부천)
- 하늘영광교회(강동)
- 함양민들레교회(함양)
- 버림없힌교회(영국)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 [눅 15:1-3 /11-32]

들어가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등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들 중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를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로마의 편에서 앞잡이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마치 친일파들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죄인들이라 기록된 자들은 창녀와 강도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죄를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짓는 자를 말합니다.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닐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틀대로 예수께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상식을 전복시키는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뒤에 부활이 있고, 약할 때 강함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 모든 역설의 절정으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러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분깃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 있는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아들의 행위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패륜 행위였습니다. 그의 요청은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니, 내 몫을 받고 나는 이것을 떠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주목해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면 그는 집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분깃을 요구합니다. 즉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의무는 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도 그에게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둘째 아들에게만 살림을 주지 않습니다.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첫째에게는 2/3의 몫을 그리고 둘째에게는 1/3의 몫을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며칠이 안 되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 대부분 토지였을, 살림들을 현금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기 위해, 아버지의 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의 관계를 차갑게 깨뜨립니다.

만아들

이제 만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만아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중점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둘째 아들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증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의 살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운을 이골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아들은 상속자이며 증재 자로의 책무를 받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여 증재하지 않습니다. 둘째의 패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동네의 수치가 되었는데도 그는 이 일을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패륜적인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탕자를 책망하고 벌하지 않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는 자식의 자유를 존중하며 허락한 것입니다. 율리엄 템플은 이러한 비유 속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물론 그는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분이 죄로 인하여 미물보다 못한 우리라는 존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인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선포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힘의 강압으로 우리들을 얼마든지 비인격적으로 굴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신 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종된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탕자의 비참한 상황과 어려움

13절에서 탕자는 아주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 친데 들친 격으로 그가 살고 있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조금의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탕자는 그 나라의 백성 중에 빌붙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엄 열매라도 먹어야 할 상황이었습다.

그 상황 속에서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합니다. 공핍이 극에 달하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와 형님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느껴야 할 수치심마저도 별것 아니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는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부끄러움과 시련보다도 현재의 먹고사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마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자신을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보아달라고 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품꾼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전한 탕자의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탕자는 품꾼보다는 종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실로 막대한 피해와 수치를 입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종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품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아버지 앞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얻되려 빌며 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활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품꾼이 되어 아버지의 집에 끼친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지금 탕자는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탕자의 문제는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돈 또한 품꾼으로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탕자에게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와 아버지와 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한 마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와 의 관계,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품꾼이 되어 일을 하며 빚을 갚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에게 죄를 뉘우치며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전격 질주
그런데 탕자의 계획이 모두 어그러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20절에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아직도 짐에서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서 아버지 가 탕자를 보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달려가’라는 단어는 경주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서 전력 질주를 하듯이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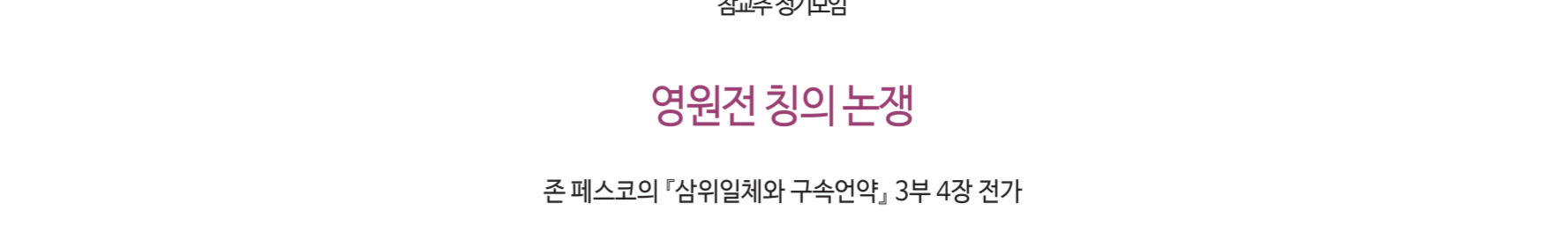
당시 성인 남성이 입는 옷은 위아래 통으로 연결된 원피스 스타일입니다. 그러기에 힘을 다해 뛰려고 한다면 손으로 치렁치렁한 치마 같은 옷을 부여잡고 달려야만 했습니다. 즉 지금 탕자의 아버지가 이처럼 자신의 하체까지 보여주며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자를 향해 뛰던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자 그를 축은히 여겨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둘째 아들이 받아야 할 수치와 수모를 자신이 대신해서 받는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탕자와의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축은히 여겨라”는 말은 “창자가 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는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 그를 보았을 때 이렇게까지 애달플 정도로 둘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한 탕자
이제 다시 탕자의 측면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봅시다. 탕자는 고향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포감이 점점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수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환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선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본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탕자는 자신의 죄를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처분에 전적으로 따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처음 탕자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태도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삶을 요구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자신의 손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그 에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 복음과 율법이 섞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전심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려 섬겼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복음적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영원전 칭의
헤르만 바빙크는 영원전 칭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이 영원 가운데서 일어났다. 둘 사이에 교환이 일어났으며 신성한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실현의 근거로서 참으로 그 일들을 실현시키고 이끈다.” 곧 택자가 영원에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전 칭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바빙크는 구속언약에서 신자의 칭의의 첫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첫 칭의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 부르심, 믿음과 행위를 통한 성령의 증거 가운데서,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심판에서 ‘반복되며 완성’ 된다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계속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속죄와 용서, 칭의, 신성한 연합, 성화, 영화 등은 믿음 뒤에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객관적 칭의) 그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열매이며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은 선택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통한 부르심 가운데 그것들을 교회에 허락하며 전가하신다. 그것들은 또한 하나님의 때에 신자의 주관적인 소유가 된다. (주관적, 수동적 칭의)” 바빙크는 이러한 이해에 따라 신자의 믿음과 첫 칭의를 분리시킵니다. 믿음의 결과로 믿음 뒤에 오는 칭의(첫 단계의 칭의)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곧 구속 언약에서의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첫 칭의와, 신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관적인 칭의(첫 단계에서 이어지고 반복되는 후속적인 칭의)가 구분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전가는 성령의

은사에 선행한다. 중생과 믿음, 회심이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에 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성령이 그리스도에게서(능동적 칭의를 전제함) 취해 그분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수동적 칭의가 이루어짐)” 의의 전가가 성령의 은사인 거듭남, 믿음, 회심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존 페스코의 반론
그러나 페스코는 아래의 세 가지 내용을 근거로 바빙크의 주장이 석의에 충분히 근거한 주장이 아님을 말합니다. 첫째, 이사야는 종의 의가 이미 택자들에게 전가되었다거나 택자의 죄가 이미 종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택자라 할지라도 의가 전가된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 이야기입니다. 신자의 구속언약에서의 칭의의 첫 단계를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 택자가 선택의 작정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는 했지만 (법적인 연합으로), 이것이 택자가 그리스도와 이미 신성한 연합(주관적, 개인적)을 이루었다는 말은 아님을 지적합니다. 타락한 모든 죄인은 아담을 머리로 그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아담과 함께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칭의의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들 또한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택자가 믿음을 갖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소유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셋째, 죄인의 칭의에 대하여 말할 때 바울은 언제나 칭의와 믿음을 결합시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인 것입니다. 바빙

유대인의 예배

성인 남자 유대인 열 사람이면 하나의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의 건물은 보통 특별한 건축 양식이 없는 평범한 직사각형 집회소였습니다. 긴 의자들이 있었고, 원로들과 부유한 회원들을 위한 높은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대 혹은 강단이 있었으며, 성경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목재함이나 벽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의 조직은 회당마다 회당장 한 명, 여러 원로들, 독서자 겸 해석자 한 명, ‘사자’라 부른 사절 혹은 서기관 한 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단순했으나 다소 길었습니다. 예배 속에는 경배와 가르침과 의식이라는 세 요소를 포괄했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성경 낭독과 성경 강해와 할례 등이 예배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는 오직 성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멸망과 함께 중단되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와 찬송은 시편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개회 기도 는 도입적 축복 기도와 십계명 낭독과 모세오경 여러 부분(이를테면 신 6:4-9; 11:13-21; 민 15:37-41) 낭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열여덟 번의 기도와 축복 기도가 따랐습니다. “저화와 주의 백

하나님 나라와 교회 생활

이 책은 종말론에 관한 일반적인 책은 아닙니다. 보통 종말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 환난, 천년왕국과 같은 주제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종말론을 다룹니다. “종말론”을 뜻하는 영어 단어 “eschatology”는 ‘에스카토스’ (“마지막”)와 ‘로고스’ (“말”)라는 두 개의 헬리어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에 대한 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특정 사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바와 같이 예수의 삶과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은 “마지막 날들”을 도래케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실

필립사르 교회사 전집 '사도적 기록' 366-369p를 축소 발행한 것입니다.

성 운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행복과 복락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저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얼굴빛으로 저희 모두에게 한결같은 복을 주옵소서” 기도는 낭독자가 드렸고,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기독교 교회로 전래된 것입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날은 안식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이고, 기도 시간은 제삼시(오전 9시), 제육시(정오), 제구시(오후 3시)였습니다.

예배 중 교육과 설교 부분은 히브리 성경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율법에서 고른 교훈 하나와, 선지서에서 고른 교훈 하나가 히브리어로 낭독된 다음, 아람어나 헬리어를 사용한 석의 혹은 주석과 설교(미드라쉬)가 뒤따랐습니다. 그런 뒤에 축복 기도와 회중의 아멘으로 예배가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외에는 정규 제사장이 없었으므로 일정한 나이가 된 유대인은 누구나 일어나서 교훈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회중에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바로 이러한 민주적인 특권을 활용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벤저민 클레드, 매튜 하몬 / 부흥과 개혁사 / ISBN 978-89-6092-523-8

일의 “마지막 장”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 전부를 포괄하여서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학자들과이러한 이해를 “개시된 종말론”이라는 용어로 불러왔습니다. “개시된” (inaugurated)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날의 새 창조 나라가 예수의 사역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미-아직 아냐”라는 종말론적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이미-아직 아냐”라는 종말론적 틀이 어떻게 교회의 삶과 사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의 삶과 사역에서 풍요롭게 적용하는가를 돕습니다. 이 책을 통해 모든 독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종말의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